

탄소소재 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개소

전북자치도, 탄소소재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서... 전북대병원 연계 '연구개발-임상-인허가' 원스톱 지원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소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날 31일 전북대학교 교병원 내 연구개발지원센터에서 '글로벌 혁신 의료기술 실증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탄소 소재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이번 실증 지원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체삽입형 탄소 소재 의료기기 연구개발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전북대학교교병원이 주관하며, 2028년까지 성능평가, 임상·비임상 시험, 인허가 등 전주기 실증 지원을 추진한다.

실증 지원센터는 유효성 평가센터, 중개 임상시험 지원센터, 탄소 소재의 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등 3개 전문 연구센터로 구성된다. 유효성 평가센터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평가와 임상 전 시험을 담당하며, 중개 임상시험 지원센터는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지난해 문을



지난날 31일 전북대학교병원 내 연구개발지원센터에서 '글로벌 혁신 의료기술 실증 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연 탄소소재 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는 첨단 제조시설(GMP)과 36종의 전문 장비를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현재 해외에서는 탄소 소재가 기존 소재보다 가벼우면서 장기간 하중을

견디는 특성과 알레르기 반응 및 부식 위험이 낮아 수술용 의료기기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들은 표준화와 인증 경험 부족, 고가의 시설과 소재로 인해 탄소 소재 의료기기 개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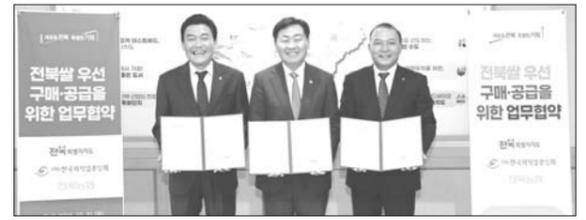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대병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인체삽입형 탄소소재 분야에 선정되어 총 4개 혁신 의료기기의 임상 및 비임상 시험을 지원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소재 혁신 의료기기의 개발에서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도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전북대병원의 생체적합성 의료기기 연구개발 경험이 축적되어 전북의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은 "전북의 강점인 탄소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의 탄소소재 의료기기 수출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지난날 3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쌀 우선 구매·공급 업무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김영일 농협전북본부장,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이 고품질 전북쌀의 전국 공급 확대를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북 쌀 전국 공급 확대 위해 '맞손'

전북자치도-전북농협-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 협약 맺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날 31일 도청에서 농협전북본부(본부장 김영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와 함께 고품질 전북 쌀의 전국 공급 확대를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 33만 6,000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전북쌀 판매업체가 입점해 고품질 전북 쌀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외

식업중앙회 회원업소의 전북 쌀 우선구매에 관한 홍보 △연중 안정적인 전북 쌀 공급 △전북 쌀 구매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력이 포함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이 전북 쌀 농가와 외식업체 간의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아,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북 쌀 산업 발전과 관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정희)은 지난날 31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워라밸 실천과 확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지원사업을 비롯해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제공기업 64개소의 다양한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동 인구가 많은 청사 내 민원실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지원사업의 내용과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이 누릴 수 있는 홍보지를 배포하고,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했다.

정정희 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지원사업과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자연스럽게 도민들에게 인식되길 바란다"며 "다양화된 가족친화인증 할인 혜택 내용 또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내년도 전북도의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증대로 이어져 일과 삶이 조화로운 전북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jbwf.or.kr) 또는 취원지원부(063-253-385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은서 기자

전북자치도, '2024 사회복지사대회' 개최

도내 사회복지사 700명 한자리에... 헌신과 화합 다짐 사회복지사 30명 표창 수여·힐링 콘서트로 사기 진작



지난날 3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2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대회'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날 3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대회'를 개최하며,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도내 사회복지사 700여 명이 함께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부심! 우리는 국가대표 사회복지사"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평소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30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고, 2부 힐링 콘서트에서는 초청가수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박주홍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장은 대회사로 "사회복지사분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처우 개선을 위해 협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전북이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도내 사회복지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나은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RISE 기본계획 수립 박차

교육부·대학·산업계 참석... '전북 라이즈 정책공감 포럼' 개최 인구소멸 대응·지역성장 현장 위한 목소리 반영... 12월 최종확정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계획 수립을 위한 막바지 의견 수렴에 한창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날 31일, 라한호텔에서 교육부와 대학·산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테크노파크(JB지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정책공감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대학 Brand Up, 산업 Grow Up, 지역 Value Up'이라는 비전 아래 4대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라이즈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도는 이 기본계획을 지난 9월 말까지 마련했으며 이후 대학 총장 간담회와 산업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교육부 라이즈 추진 부서 박성하 과장이 직접 RISE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성공적인 라이즈 운영의 핵심 요소로 '대학 혁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소개했다. 이에 충북대 이정미 교수가 사례 발표를 이어가며, 혁신을 위한 다양한 모

델들을 소개해 큰 관심을 받았다.

포럼은 8월부터 이어온 활발한 소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현재 교육부 글로벌 위원의 협이 및 세부 계획 조정을 통해 라이즈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위원회'의 6개 분과와 76명의 위원들과 함께 각 분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기존 라이즈 사업 RIS 및 LINC 사업단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10월 10일에는 산업계 공청회, 10월 15~16일에는 도·시군·대학 관계자 워크숍, 10월 17일에는 대학 총장 간담회까지 릴레이 의견수렴을 지속해왔다.

이지형 전북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11월과 12월에도 세부 계획 보완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이며, 교육부 로드맵에 맞춰 12월까지 최종 '라이즈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완주군 공고 제2024-1395호

분묘개장공고

구이면 원기리 원기 전원마을지구 내 무연고 분묘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완주군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 묘 위 치	분묘기수	비 고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450-4번지 일원	2기	※무연묘로 추정

2. 개장시유: 완주군 원기 전원마을지구 내 편입

3.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4. 11. 1. ~ 2024. 11. 21.)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5. 공고기간 만료 후 절차: 화장 및 자연장

※ 봉안 기간 10년 이상 도래(2011. 12. 안치,

(제)평화원(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6. 신고방법: 매장자와 연고자와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명서류 등)

7. 신고 처: 완주군청 지역활력과 농촌개발팀 (☎063-290-2823)

2024년 11월 1일 완주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